

4. 철기시대

철기시대는 원삼국시대라고도 하며, 역사적으로는 마한시대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은 송광면 대곡리·낙수리, 보성 죽산리가 있고 지표조사로 확인된 주암면 구산리, 보성 양동리·시천리·유리 등이 있다. 전남지역의 철기시대 유적은 해남 군곡리 조개더미가 알려져 있었으나, 주암댐에서 집단주거지들이 발굴됨으로써 이 시기의 문화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

1) 송광면 낙수리·대곡리 유적

송광면 낙수·대곡리 유적은 주암댐 수몰지구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1986년부터 1989년까지 국립광주박물관과 서울대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이 유적은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철기시대의 주거지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 낙수리는 구릉상에서, 대곡리는 강변 충적평지에서 조사되었다. 대곡리는 청동기시대부터 백제시대에 이르는 주거지들이 복합되어 나타났지만, 낙수리는 철기시대의 주거지만 발견되었다. 이는 시대에 따른 주거지의 입지 지형이 선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낙수리 주거지는 모두 15기가 발굴되었는데, 구릉의 일부만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당수의 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트랜치상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은 둥근 네모꼴이며, 구릉의 경사면에 위치한 주거지는 ㄴ자형으로 파고 만들었다. 대부분 주거지에서 기둥구멍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1기에서는 4개의 기둥구멍이 방형으로 배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대곡리에서는 64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는데, 평면이 거의 장방형계이지만 원형도 6기가 조사되었다. 대곡리 주거지 조사에서 중앙의 온방용 화덕자리와 벽선 가까이에 취사용 화덕자리가 있는 것도 확인되어 당시 주거지의 내부생활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취사용 화덕자리 부근에서는 밀이 겹겹이 그을린 길쭉한 달걀꼴의 토기와 시루가 세트로 출토되어 조리하는 방법을 추정할 수 있다. 주거 면적은 20㎡ 이내가 대부분이어서 청동기시대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아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석도·숫돌·석촉 등의 석기류와 철도자·철촉 등 철기류, 유리제 옥도 출토되고 있어 석기류를 계속 사용하였지만 이미 철기문화가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격자문(格子門)과 승석문(繩蓆文) 등 타날문이 시문된 호형(弧形)·장난형(長卵形) 등 다양한 종류의 토기류가 출토되고 있는데, 박자(拍子: 토기 표면을 두드리는 방망이)의 출토로 당시 주변에서 직접 토기를 제작·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물들로 볼 때 철기의 보급과 토기 제작기술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새로운 도구나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사회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지속된 생활터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낙수리, 대곡리 유적 등 대단위로 형성된 집단취락지를 발굴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고, 우리나라 원삼국시대의 취락이나 주거지 변천연구 등 당시 생활사의 한 단면을 추론해볼 수 있는 유적이다.

